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내용적 특징 및 조선 학자들의 인식과 활용*

양원석**

-
1. 서론
 2.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내용적 특징
 - 1)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구성
 - 2) 『詩序辨說』의 내용적 특징
 3. 『詩序辨說』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인식과 활용
 - 1) 『詩序辨說』의 중요성 강조 및 긍정적 입장
 - 2) 『詩序辨說』에 대한 비판적 입장
 4.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朱熹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내용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아울러 조선의 학자들이 『시서변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시서변설』이 주희 시경학에서 가지는 위상 및 조선 학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시서변설』 「서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서변설』의 저술 취지와 구성 방식 등을 정리해 보았으며, 이어서, 주희가 판정한 淫詩 시편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시서변설』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이어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시서변설』을 인용하고 활용한 사례와 그의

* 본 연구는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yang1st@korea.ac.kr

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朱熹는 詩序를 經文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기록으로 모으고 시서의 得失을 논하여 그것의 오류를 변증하겠다는 취지로 『시서변설』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의 ‘反詩序說’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시서변설』 구성의 특징으로는 大序와 小序의 구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서와 소서에 대한 역대의 다양한 논의를 종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서변설』의 내용적 특징으로는 첫째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시편의 요지를 제시하고 淫詩說을 강조하였다는 점, 둘째 詩序說과 美刺說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셋째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희의 견해 특히 음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의 학자들 가운데 金鍾正, 正祖, 洪奭周는 『시서변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서변설』의 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시서설을 중시하였던 徐滢修와 주희 시경학과 시서설을 겸하고자 하였던 徐有渠는 대체로 『시서변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주희 시경학 및 시서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시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서변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였다.

주제어: 朱熹, 詩經學, 『詩序辨說』, 朝鮮, 金鍾正, 正祖, 洪奭周, 徐滢修, 徐有渠

1. 서론

본고는 朱熹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내용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아울러 조선의 학자들이 『시서변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시서변설』이 주희 시경학에서 가지는 위상 및 조선 학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희 시경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대표적인

注解書로는 『詩集傳』(1187년)이 있으며, 또한 詩序를 대상으로 주희가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詩序辨說』(1187년 이후), 주희의 손자 朱鑑이 주희의 文集과 語錄 등에 언급된 『시경』 관련 논의 내용을 모은 『詩傳遺說』(1235년), 주희와 그의 門人들간에 주고 받았던 問答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朱子語類』(1270년)의 『시경』 관련 부분 등이 있다.¹⁾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특히 『시서변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서변설』은 시서에 대한 주희의 견해가 집약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또 『시집전』 이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²⁾ 주희 시경학의 정론이 담겨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서변설』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주희 시경학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특히 주희의 시서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학계에서는 『시서변설』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 편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다음의 연구는 『시서변설』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이재훈(1994)의 「朱子 詩經學 研究」는 『시서변설』 전반에 걸친 상세한 고증을 진행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천기철(2004)의 「詩序와 朱熹의 詩 의식」은 주희의 시경학이 시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서변설』의 『시경』 이해 방식과 그 한계를 다

1) 양원석(2009) 참조.

2) 『朱子語類』 권80의 “지금 『시집전』을 지어 시를 앞에 배열해 놓고 나서(詩序는) 뒤로 몰아 따로 한 곳에 있게 하였다.(『朱子語類』 卷80: 見作詩集傳, 待取詩令編排放前面, 驅逐過後面, 自作一處.)”라는 기록, 『시서변설』에서 종종 “說見本篇”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本篇이 『시집전』을 가리킨다는 점 등을 통해, 『시서변설』이 『시집전』이 작성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주자어류』 권80의 내용은 주희 59세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58세(1187년)에 완성된 『시집전』에 비해 『시서변설』이 조금 늦게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이재훈(1994), 45-49면, 양원석(2009) 138면.]

루었고, 양원석(2009)의 「朱熹의 『詩經』 注解書 비교 연구」는 주희의 『시경』 注解書인 『詩集傳』, 『詩序辨說』, 『朱子語類』, 『詩傳遺說』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각 책의 편찬 시기, 저술 취지, 내용 구성 및 『시경』 각 시편의 해석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본고는 이상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서변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시서변설』 「서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면서 『시서변설』의 저술 취지와 구성 방식 등을 정리한다. 아울러 주희가 판정한 淫詩 시편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시서변설』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조선시대 학자들, 특히 金昌協, 尹鳳朝, 金鍾正, 正祖, 洪奭周, 徐滢修, 徐有巢 등이 『시서변설』을 인용하고 활용한 사례와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4장 결론에서는 본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2.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내용적 특징

1)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구성

본 장에서는 朱熹가 『詩集傳』 외에 『詩序辨說』을 별도로 작성한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시서변설』의 구성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먼저 『시서변설』의 저술 취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서변설』의 서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詩序의 작자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사람

은 孔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子夏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國史라고 하지만 모두 고찰할 수 있는 분명한 문헌이 없다. 오직 『後漢書』 「儒林傳」에서 ‘衛宏이 毛詩序를 지었으며 그것이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詩序는 衛宏이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鄭玄은 또 ‘詩序들은 본래 한 권으로 묶여있었는데 毛公이 비로소 나누어 각 편의 앞에 두었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毛公 이전에 전해온 지 오래된 것인데 衛宏은 다만 더 보태고 윤색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근세의 유자들은 대부분 詩序의 첫 구절은 모형이 나누어 구분한 것이고 그 아래에 부연하여 설명한 것은 후인이 더 보탠 것이라고 여겼으니 이치상 혹 그럴 만하다. … 毛公이 經에 편입하면서 篇 뒤에 두지 않고 篇의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注文으로 여기지 않고 곧바로 經文의 글자라고 여겼으며, 의문하는 말로 여기지 않고 결단하는 말이라고 여겼다. 그 뒤에 三家의 傳마저 없어지고 毛公의 설만 전해지게 되자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詩序는 마침내 시인이 먼저 命題한 것처럼 되었고, 詩文은 도리어 詩序로 인하여 지어진 것처럼 되었다. 이에 독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믿어 감히 의문하지 못하였고, 통하지 않는 바가 있게 되면 반드시 이리저리 맞추고 穿鑿하여 부합하게 하였으니, 經의 본문이 비틀어지고 어긋나며 깨지고 조각이 나서 文理를 이루지 못할지언정 끝내 小序가 漢儒로부터 나왔음을 차마 밝히지 못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여겼지만, 詩序가 전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간혹 전수받은 證驗이 있어서 폐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자못 그것을 모아서 『詩集傳』에 붙이고 다시 한 편으로 병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得失을 논한다.³⁾

3) 『詩序辨說』, 「序文」: 詩序之作, 說者不同. 或以爲孔子, 或以爲子夏, 或以爲國史, 皆無明文可考. 唯後漢書儒林傳以爲衛宏作毛詩序, 今傳於世, 則序乃宏作明矣. 然鄭氏又以爲諸序本自合爲一編, 毛公始分以實諸篇之首, 則是毛公之前, 其傳已久, 宏特增廣而潤色之耳. 故近世諸儒多以序之首句, 爲毛公所分, 而其下推說云云者, 爲後人所益, 理或有之. … 及至毛公引以入經, 乃不綴篇後, 而超冠篇端, 不爲注文而直作經字, 不爲疑辭而遂爲決辭. 其後三家之傳又絕, 而毛說孤行, 則其抵牾之迹, 無復可見. 故此序者, 遂若詩人先所命題, 而詩文反爲因序以作. 於是, 讀者轉相尊信, 無敢擬議. 至於有所不通, 則必爲之委曲遷就, 穿鑿而附合之. 寧使經之本文繚戾破碎, 不成文理, 而終不忍明以小序爲出於漢儒也. 愚之病此久矣, 然猶以其所從來也遠, 其間容或直有傳授證驗而不可廢

여기서 詩序의 作者 문제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볼 수 있다. 주희는 『後漢書』 「儒林傳」에 근거하여 시서의 작자를 衛宏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鄭玄의 말을 참고하여 毛公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시서에 대해 衛宏이 더 보태고 윤색하였다고 하였다. 즉 시서의 작자를 孔子나 그 제자인 子夏로 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였던 漢唐詩經學의 입장과 달리, 주희는 시서의 작자를 衛宏으로 보거나 또는 전해 내려오던 시서를 衛宏이 윤색한 것이라고 하면서⁴⁾ 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것이다.⁵⁾

게다가 시서가 經에 편입되면서 '이 詩序는 마침내 시인이 먼저 命題한 것처럼 되었고, 詩文은 도리어 시서로 인하여 지어진 것'처럼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자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믿게 되면서 시서가 『시경』 시편 해석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희가 보기에 이러한 시서는 穿鑿附會한 것이고 經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서를 별도로 모아서 『시집전』에 붙였다가 또 다시 한편으로 병합하여 그것의 得失을 논하고자 한 것이 『시서본설』을 이루게 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者，故既頗采以附傳中，而復并爲一編以還其舊，因以論其得失云。

- 4) 詩序의 作者 문제에 대한 주희의 견해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朱子語類』卷80: 詩序，東漢儒林傳分明說道是衛宏作，後來經意不明，都是被他壞了，某又看得亦不是衛宏一手作，多是兩三手合成一序，愈說愈疏。：詩大序亦只是後人作，其間有病句。：詩序多是後人妄意推想詩人之美刺，非古人之所作也。：周禮禮記中，史並不掌詩，左傳說自分曉，以此見得大序亦未必是聖人作。
- 5) 詩序의 作者에 논의는 역대로 여러 說이 분분하였다. 鄭玄은 '大序는 子夏의 作이고, 小序는 子夏와 毛公의 合작이다.'라고 하였는데, 魏晉 이래로 異議가 없었다. 范曄의 『後漢書』 「儒林列傳」에서는 '詩序는 東漢 初의 衛宏의 作'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에 一說로 간주될 뿐이었고, 唐代에 편찬된 『隋書』 「經籍志」에 '詩序는 子夏가 創하고 毛公·衛宏이 增益하고 潤色한 것이다.'라고 했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漢代에서 中唐까지는 詩序의 작자를 子夏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韓愈에 의해 '詩序子夏所作'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제기된 이래, 宋代의 歐陽修, 張載, 蘇轍, 鄭樵 그리고 朱熹 등에 이르러서 詩序의 작자는 子夏가 아니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재훈(1994), 169-178면 참조]

요컨대, 주희가 『시서변설』을 작성하게 된 취지는 衛宏이 지은 시서는 믿을만한 것이 못 되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시서를 경문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기록으로 모으고 시서의 得失을 논하여 그것의 오류를 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술을 통해 주희의 ‘反詩序說’의 견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이루어진 『시서변설』은 크게 「序文」, 「大序」, 「小序」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文」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서변설』을 작성한 취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大序」에서는 『毛詩』의 대서를 그대로 수록해 두고 끝부분에 ‘說見綱領’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⁶⁾ 「小序」에서는 첫 편인 「關雎」부터 마지막 편인 「殷武」에 이르기까지 각 시편의 소서를 각각 수록하고 이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소서만 제시하고 별도로 주희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소서에 異見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서 아래에 주희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대부분 소서의 해석에 반대하거나 소서의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시서변설』에서는 크게 「대서」와 「소서」를 별도의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서」와 「소서」의 구분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시서변설』에서 「大序」아래에 “詩者志之所之也, … 是謂四始, 詩之至也.”를 수록하고, 「小序」아래에 「關雎」에 해당하는 것으로 “關雎, 后妃之德也. … 教以化之.”와 “然則關雎麟趾之化, … 是關雎之義也.”를 제시하면서 大序와 小序의 구분을

6) 주희는 大序의 내용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기도 하였지만(『朱子語類』 卷80: 大序好處多, 然亦有不滿人意處.), 大序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朱子語類』 卷80: 詩大序亦只是後人作, 其間有病句.; 大序亦有未盡, 如發乎情止乎禮義, 又只是說正詩, 變風何嘗止乎禮義.) 특히 주희는 大序의 “發乎情止乎禮義”에 대한 부정적 근거로 하여 美刺說에 반대하고 淫詩說을 주장하였다.

분명히 한 것이다.⁷⁾ 「關雎」의 시서로 제시된 내용은 대서와 소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역대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상의 『시서변설』의 구성을 통해 주희는 大序와 小序의 구분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⁸⁾

2) 『詩序辨說』의 내용적 특징

본 장에서는 『詩序辨說』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朱熹가 판정한 淫詩 시편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석을 검토해 보며, 아울러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희의 견해가 『시서변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희가 『시서변설』을 작성하게 된 취지는 ‘反詩序’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반시서’의 견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그의 淫詩說이다. 즉 『詩經』의 ‘男女相悅’의 내용을 담은 시편에 대해, 詩序에서는 美刺의 관점에 따라 정치 풍자의 내용을 담은 시로 보았지만, 주희는 본인의 性情論 및 윤리도덕관을 바탕으로 민간의 소인배가 지은 음란한 내용을 담은 淫詩라고 판정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시서와 주희의 첨예한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주희 ‘반

7) 주희가 『시서변설』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大序와 小序는 다음과 같다.

〔大序〕 詩者志之所之也，在心爲志，發言爲詩。情動於中而形於言，言之不足，故嗟歎之，嗟歎之不足，故永歌之，永歌之不足，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是以，一國之事繫一人之本，謂之風。言天下之事，形四方之風，謂之雅。雅者，正也，言王政之所由廢興也。政有小大，故有小雅焉，有大雅焉。頌者，美盛德之形容，以其成功告於神明者也。是謂四始，詩之至也。

〔小序〕 關雎，后妃之德也。風之始也，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故用之鄉人焉，用之邦國焉。風，風也教也，風以動之，教以化之。……然則關雎麟趾之化，王者之風，故繫之周公。南，言化自北而南也。鵲巢鸞虞之德，諸侯之風也，先王之所以教。故繫之召公。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是以，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愛在進賢，不淫其色，哀窈窕，思賢才，而無傷善之心焉，是關雎之義也。

8) 이상은 양원석(2009), 138-140면의 내용에 더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더한 것임.

시서'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음시이므로, 음시 시편을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석을 검토해 보는 것은 『시서변설』의 내용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시경학의 주요 쟁점으로는 詩序說, 美刺說, 淫詩說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變風止乎禮義', '思無邪', '放鄭聲'에 대한 해석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주희는 詩序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反詩序'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이것이 주희 시경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는 反詩序說을 주장하면서, 시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美刺說을 부정하였으며 또한 '詩序子夏所作說'과 '變風止乎禮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아울러 주희는 淫詩說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讀詩者의 思無邪'와 '淫詩 1인칭 作者說', 그리고 '放鄭聲'의 '聲'을 '가사'가 아닌 '음악(소리)'으로만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상이 곧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희의 견해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文集을 비롯하여 『詩集傳』, 『詩序辨說』, 『朱子語類』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고는 특히 『시서변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음시 시편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석 및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서변설』의 견해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시서변설』은 더욱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詩序說과 美刺說을 비판하면서 淫詩說을 강조하였다. 아래는 『시서변설』에서 음시의 각 시편에 대해 刺詩가 아니고 淫詩임을 언급한 일부 내용이다.

「衛風·氓」: 此非刺詩.

「王風·大車」: 非刺大夫之詩. 乃畏大夫之詩.

「鄭風·有女同車」：序乃以爲國人作詩以刺之，其亦誤矣。

「齊風·東方之日」：此男女淫奔者所自作，非有刺也。其曰，君臣失道者，尤無所謂。

「陳風·防有鵲巢」：此非刺其君之詩。

「陳風·月出」：此不得爲刺詩。

주지하다시피, 『毛詩正義』는 詩序說에 기반하여 상당 수의 시편이 美刺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주희는 미자설을 반대하면서 음시설을 주장하였다. 이상 『시서변설』의 설명, 즉 ‘이것은 刺詩가 아니다 [此非刺詩]’, ‘대부를 풍자한 시가 아니다 [非刺大夫之詩]’, ‘詩序는 國人이 시를 지어서 풍자했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틀린 것이다. [序乃以爲國人作詩以刺之, 其亦誤矣.]’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희는 『시서변설』에서 미자설에 대해 간명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비판하였다.

또한 주희는 『시서변설』에서 ‘男女相悅’의 내용을 가진 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淫詩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序說誤矣’라는 표현을 통해 시서의 설이 틀렸음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鄭風·桑中」：此詩，乃淫奔者所自作。

「王風·采葛」：此淫奔之詩。

「王風·丘中有麻」：此亦淫奔者之詞。

「鄭風·將仲子」：莆田鄭氏謂“此實淫奔之詩，無與於莊公叔段之事。…”今從其說。

「鄭風·叔于田」：此詩恐其民間男女相說之詞耳。

「鄭風·遵大路」：此亦淫亂之詩，序說誤矣。

「鄭風·丰」：此淫奔之詩，序說誤矣。

「鄭風·揚之水」：此男女要結之詞，序說誤矣。

「陳風·東門之池」：此淫奔之詩，序說蓋誤。

이상 『시서변설』의 설명, 즉 ‘이 시는 淫奔者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此詩, 乃淫奔者所自作.]’, ‘이것은 淫奔詩이다 [此淫奔之詩]’, ‘이는 淫奔詩이다. 序說은 틀렸다. [此淫奔之詩, 序說誤矣.]’ 등의 언급을 통해, 『시서변설』은 해당 시편이 淫詩임을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⁹⁾

요컨대, 『시서변설』은 詩序說·美刺說 비판 및 淫詩說 주장이라는 주희 시경학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분명하면서도 직접적인 어조로 언급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둘째, 『시서변설』은 詩序를 비판하고 辨說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희의 시서 비판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래와 같이 「鄭風·狡童」에 대한 『시서변설』의 설명을 살펴보겠다.

대체로 詩序를 쓴 사람이 鄭風의 시편에 대해 그 마땅한 해설을 할 수 없으면, 시편의 내용과 상관없이 들어서忽에게 가져다 붙이고 있다. 시문의 뜻을 한 번 잃게 되어서 그것이 義理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이러한 詩序의 오류는 작은 잘못이 아닌데도 뒤에 해설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서의 논의가 더욱 정밀할수록 그것의 폐해는 더욱 심하니, 학자들은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¹⁰⁾

9) 한편 『시서변설』은 美刺說과 詩序說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했지만 시서설을 긍정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鄭風·東門之墜」에 대해 『시집전』에서는 음시라고 하였으나, 「鄭風·東門之墜」의 詩序 내용 ‘刺亂也. 男女有不待禮而相奔者也.(음란함을 풍자한 시이다. 남녀 중에 예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 음분한 자가 있었다.)’에 대해 『시서변설』에서 ‘此序得之(이 序說은 맞다)’라고 하였다. 주희는 기본적으로 시서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본인의 기준에 따라 시서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서설을 따랐다. 음시 30편 중에서 시서설을 긍정한 편은 「鄭風·東門之墜」 1편 뿐이지만, 음시 외의 시편에서 시서설을 따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10) 『詩序辨說』, 「鄭風·狡童」: 大抵, 序者之於鄭詩, 凡不得其說者, 則舉而歸之於忽. 文

시서를 쓴 사람은 鄭風의 시편에 대해 마땅한 해설을 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일을忽에 가져다 붙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시서의 해석은 詩의 義理를 해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서의 오류를 후대 사람들이 답습하게 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주희는 시의 義理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鄭風·有女同車」에 대한 『시서변설』의 설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詩序는 國人이 시를 지어서 풍자했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틀린 것이다. 뒤의 독자들도 또 詩序의 오류를 답습하여 詩序의 주장을 반드시 단단하게 잘 짜여지도록 하여 문장에 죄를 입게 하는데 이르게 하면서도 그것을 사면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시를 해석한 詩序의 오류를 따르면서, 그것이 是非의 바름을 잃고 義理의 공변됨을 해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여 聖經의 본뜻을 어지럽히고 학자의 心術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내가 辨說하지 않을 수 없다.¹¹⁾

시서의 잘못된 주장을 답습하게 되면 是非의 바름을 잃고 義理의 공변됨을 해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서는 聖經의 본뜻을 어지럽히고 학자의 心術을 무너뜨리게 되는 폐단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이 곧 시서를 비판하고 辨說하게 된 이유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다루었던 『시서변설』 「서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주희는 시서가 穿鑿附會한 것이고 經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문제점을

義一失，而其害於義理，有不可勝言者。… 凡此皆非小失，而後之說者，猶或主之。其論愈精，其害愈甚，學者不可以不察也。

11) 『詩序辨說』, 「鄭風·有女同車」: 序乃以爲國人作詩以刺之, 其亦誤矣。後之讀者, 又襲其誤, 必欲鍛鍊羅織, 文致其罪, 而不肯赦。徒欲以徇說詩者之繆, 而不知其失是非之正, 害義理之公。以亂聖經之本指, 而壞學者之心術, 故予不可以不辨。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서를 비판하였으며, 이에 시서의得失을 논하고자 『시서변설』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희는 시서 비판의 이유를 『시서변설』 곳곳에서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서변설』은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희의 견해, 특히 淫詩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鄘風·桑中」에 대한 『시서변설』의 설명이다.

이 시는 淫奔者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序의 첫 구에서 ‘淫奔함을 풍자한 것’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 풍자하는 시는 진실로 한 마디 말을 더하지 않아도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 「清人」·「猗嗟」와 같은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일찍이 그것들을 완미해 보면 그것을 읊은 사람은 오히려 읊는 바와 밖에 있으며, 말뜻 사이에 여전히 貧과 主의 구분이 있다. 어찌 다른 사람의 惡을 풍자하고자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그 사람의 말을 하여 그 풍자하는 사이에 자신을 빠뜨리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반드시 그러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 二南과 雅와 頌은 제사와 朝聘에 사용하는 것이고 鄭聲과 衛聲과 桑間·濮上의 음악은 뒷골목 바르지 못한 천한 자들의 노래이다. 공자는 鄭風과 衛風에 대해 그 성률을 음악에서 깊이 끊어버리는 것으로 법도를 삼았으며 그 가사를 『시경』에 엄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¹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희 음시설의 주요 근거로는 美刺說 부정, 1인칭 作者說, 民間閭巷小人輩 作者說, ‘放鄭聲’의 ‘聲’이 ‘가사’가 아닌

12) 『詩序辨說』, 「鄘風·桑中」: 此詩, 乃淫奔者所自作. 序之首句以爲刺奔, 誤矣. … 夫詩之爲刺, 固有不加一辭, 而意自見者, 清人·猗嗟之屬是已. 然嘗試觀之, 則其賦之人, 猶在所賦之外, 而詞意之間, 猶有賓主之分也. 豈有將欲刺人之惡, 乃反自爲彼人之言, 以陷其身於所刺之中, 而不自知也哉. 其必不然也, 明矣. … 二南·雅·頌, 祭祀朝聘之所用也, 鄭·衛·桑·濮, 里巷狹邪之所歌也. 夫子之於鄭·衛, 蓋深絕其聲於樂, 以爲法, 而嚴立其詞於詩, 以爲戒.

‘성률(소리)’라는 점 등이 있다.

위 지문의 내용 중 ‘淫奔함을 풍자한 것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以爲刺奔，誤矣.〕’는 미자설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고, ‘淫奔者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淫奔者所自作.〕’는 음시 1인칭 작자설에 해당하며, ‘뒷골목 바르지 못한 천한 자들의 노래이다.〔里巷狹邪之所歌也.〕’는 民間閭巷小人輩 作者說의 견해를 보인 것으로, 주희의 음시 주장의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자는 鄭風과 衛風에 대해 그 성률을 음악에서 깊이 끊어버리는 것으로 법도를 삼았으며 그 가사를 『시경』에 엄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夫子之於鄭·衛，蓋深絕其聲於樂，以爲法，而嚴立其詞於詩，以爲戒.〕’라는 언급은 ‘放鄭聲’의 ‘聲’이 ‘가사’가 아닌 ‘성률(소리)’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주희가 聖經인 『시경』에 음시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음시설의 근거 중 하나이다.

다음은 이어지는 「鄘風·桑中」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설이다. 여기에서는 大序의 ‘變風止乎禮義’ 및 『논어』의 ‘思無邪’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볼 수 있다.

大序에서 말한 ‘止乎禮義’와 공자께서 말한 ‘思無邪’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大序에서 말한 것은 「柏舟」, 「綠衣」, 「泉水」, 「竹竿」편 등을 가리키는 것이니, (大序의 ‘止乎禮義’가) 여기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일 뿐이지 시편마다 다 그리하여 「桑中」과 같은 부류의 시편도 ‘止乎禮義’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공자의 말씀은 바로 邪와 正, 美와 惡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여 모두 惡을 징계하고 善을 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性情의 바름을 얻게 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지, 「桑中」과 같은 부류의 시편을 ‘사특함이 없는 생각(無邪之思)’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¹³⁾

大序에서는 變風 시편의 경우 비록 '사람의 情에서 나온 것[發乎情]'이라 하더라도 '모두 예의에 맞는 것[止乎禮義]'이라고 하였다. 이는 '남녀상열'의 내용을 가진 시편도 모두 禮義에 맞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美刺의 관점에서 변풍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희는 大序에서 말한 것은 「柏舟」, 「綠衣」, 「泉水」, 「竹竿」편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변풍에 '止乎禮義'에 해당하는 시편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桑中」과 같은 부류의 '남녀상열'의 내용을 담은 시편은 '止乎禮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주희는 大序에서 말한 '變風止乎禮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변풍에 음시가 존재함을 주장한 것이다.

『논어』의 '思無邪'에 대해서도 주희는 '作詩者의 思無邪'가 아닌 '讀詩者의 思無邪'를 언급하였다. '讀詩者의 思無邪'란 『시경』 변풍에는 邪와 正, 美와 惡이 섞여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시를 읽는 자들은 이러한 시편을 통해 惡을 징계하고 善을 권하면서 '思無邪'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주희 음시설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이다.

이상을 통해, 『시서변설』에서 주희 시경학의 주요 견해 특히 淫詩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집전』은 시편의 내용 설명이 위주이기 때문에, 음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시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시서를 비판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곧 『시집전』과 비교되는 『시서변설』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13) 『詩序辨說』, 「鄘風·桑中」: 大序所謂止乎禮義, 夫子所謂思無邪者, 又何謂邪. 曰大序指柏舟·綠衣·泉水·竹竿之屬而言, 以爲多出於此耳, 非謂篇篇皆然, 而桑中之類, 亦止乎禮義也. 夫子之言, 正爲其有邪正美惡之雜, 故特言此, 以明其皆可以懲惡勸善, 而使人得其性情之正耳, 非以桑中之類, 亦以無邪之思作之也.

3. 『詩序辨說』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인식과 활용

朱熹의 『詩序辨說』은 17세기 후반 ~ 18세기 초반 金昌協(1651-1708),¹⁴⁾ 尹鳳朝(1680-1761)¹⁵⁾ 등에 의해 조선 학계에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金鍾正, 正祖, 洪奭周, 徐滢修, 徐有渠 등이 주로 『시서변설』을 인용하면서 활용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이를 『시서변설』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긍정적 입장과 『시서변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다.

1) 『詩序辨說』의 중요성 강조 및 긍정적 입장

(1) 金鍾正(1722-1787)

조선 학계에서 『詩序辨說』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학자는 金鍾正으로 여겨진다. 그는 본인의 문집 『雲溪漫稿』 卷13의 「筭錄」 「詩傳」이라는 글을 통해 朱熹 『詩集傳』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시서변설』을 강조하

14) 金昌協은 『列女傳』 「序」의 「文王이 덕행을 몸소 행하여 남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문왕이 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는 주희의 『시서변설』에서도 그 뜻을 드러내었고 『시집전』 「주남」 뒷부분에서 논의한 부분에도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列女傳序, 世皆知文王之所以興, 能得內助, 而不知其所以然者, 蓋本於文王之躬化, 此義極善, 從來論者, 未能及此. 朱子詩序辨中, 既明著其說, 而集傳周南篇後所論, 亦此意也.〕

15) 尹鳳朝는 「君子陽陽」에 대한 『시집전』의 주석에 「或曰, 序說亦通」이라는 내용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해당 小序의 내용(君子陽陽, 閔周也. 君子遭亂, 相招爲祿仕, 全身遠害而已.)을 그대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시서변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시집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尹鳳朝, 『圃巖集』 卷10, 「答朴進士 正源」: 詩王風君子陽陽註, “或曰序說亦通”, 序說前後不見. / 序, 少序也. 少序曰: “君子陽陽, 閔周也. 君子遭亂, 相招爲祿仕, 全身遠害而已.” 此見於朱子詩序辨中, 故集註更不提論歟.〕

였다.

김중정은 『雲溪漫稿』 卷13 「筓錄」 '詩傳'의 가장 앞 부분에 『시서변설』의 서문 전체를 그대로 옮겨 제시하였고,¹⁶⁾ 그 아래에 “일찍이 중국 본을 보니 『시서변설』 1권을 『시집전』 뒤에 붙여두었는데, 조선본에서는 그것을 삭제하였으니 그 잘못이 아주 심하다. 이에 『시서변설』의 앞부분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詩序의 연원과 朱子 논변의 大旨를 알게 하고자 한다.”¹⁷⁾라고 하며 『시서변설』의 서문을 轉載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시집전』 20권본의 경우 『시서변설』이 합본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8권본이 되면서 『시서변설』이 분리되었고 조선에서는 8권본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시서변설』이 크게 유통되지 않았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서의 연원과 주희의 『시경』 해석의 취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서변설』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詩傳’에서는 이처럼 『시서변설』의 서문 전체를 그대로 수록한 것에 이어서, 『시집전』 서문의 일부 내용인 “至於列國之詩 … 以行黜陟之典”, “去其重複, 正其紛亂, … 亦刊而去之.”, “尤非後世能言之士, 所能及之.”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305편 중의 일부 시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시서변설』의 내용을 언급한 항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騶虞」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 부분은 小序가 제시하고 주희가 동의하

16)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筓錄」 '詩傳': 朱子曰: “詩序之作, 說者不同. 或以爲孔子, 或以爲子夏, 或以爲國史, 皆無明文可考. … 愚之病此久矣, 然猶以其所從來也遠, 其間容或真有傳授證驗而不可廢者, 故既頗采以附傳中, 而復并爲一編, 以還其舊, 因以論其得失云.”

17)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筓錄」 '詩傳': 按嘗見唐本, 以詩序辨一卷, 繫于集傳之後, 而鄉本則刪之, 其失甚矣. 茲以辨說首條, 錄之于此, 俾覽者知詩序源委及朱子論辨之大旨云.

있던 「麟之趾」-「關雎」와 「騶虞」-「鵲巢」의 效應 구도에 대해, 「麟之趾」-「關雎」의 효응 구도는 인정하지만 「騶虞」-「鵲巢」의 효응 구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¹⁸⁾ 이어서 뒷 부분은 아래와 같이 騶虞의 뜻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騶虞〕… (歐陽公은) “賈誼는 ‘騶는 文王의 동산 이름이고, 虞는 동산에서 짐승을 담당하는 관리이다.’라고 했다.”고 하였고, 陳氏는 “『禮記』 「射義」에 ‘天子는 騶虞로 節을 삼으니 樂官이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虞가 관리임은 분명하다. 사냥은 虞를 위주로 하는데, 실체는 文王의 仁을 찬탄하면서도 드러내어 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는 비록 이 설을 『시집전』에 수록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시서변설』에 수록하였으니, 이는 두 가지 설을 모두 보존하고자 하는 뜻인 듯하다.¹⁹⁾

『시집전』에서는 騶虞를 짐승 이름이라고 하였지만,²⁰⁾ 『시서변설』에서는 추우를 짐승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하면서 그 주장의 내력과 근거를 제시하였다.²¹⁾ 김종정은 이러한 『시서변설』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추우

18) 「麟之趾」와 「騶虞」의 小序에서 각각 “「麟之趾」는 「關雎」의 效應〔麟之趾，關雎之應也。〕”이라고 하였고 “「騶虞」는 「鵲巢」의 효응〔騶虞，鵲巢之應也。〕”이라고 하였으며, 주희의 『시집전』에서도 이에 동의하였지만〔序以騶虞爲鵲巢之應，而見王道之成，其必有所傳矣。〕, 김종정은 「麟之趾」-「關雎」의 경우와 「騶虞」-「鵲巢」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騶虞」의 경우 시편 내용을 볼 때 제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騶虞」-「鵲巢」의 효응 구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筮錄」 詩傳: 騶虞. 按小序, 以麟趾爲關雎之應, 騶虞爲鵲巢之應, 而集傳亦取之. 然細觀二詩, 亦稍有異. 麟趾以喻文王之子姓, 則其爲關雎之應信矣. 騶虞以喻諸侯之仁德, 則其爲鵲巢之應者, 似異於麟趾之例矣. 且彼以麟之趾, 興振振公子, 則于嗟麟兮, 可知其爲公子也. 此以彼苗而葭, 壹發五犯起頭, 則于嗟乎騶虞, 何以見其爲諸侯也。〕

19)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筮錄」 詩傳: “賈誼曰: ‘騶者, 文王之囿名, 虞者, 囿之司獸也.’” 陳氏曰: “射義云, ‘天子以騶虞爲節, 樂官備也.’ 則其爲虞官明矣. 獵以虞爲主, 其實歎文王之仁而不斥言也.” 朱子雖不以此說載之於集傳, 而特載於詩序之辨者, 蓋亦兩存之意歟.

20) 『詩集傳』, 「召南·騶虞」: 騶虞, 獸名, 白虎黑文, 不食生物者也.

관직설'을 소개하였으며, 주희가 『시집전』에서 '추우 김승설'을 언급한 것에 이어 『시서변설』에서 '추우 관직설'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설을 모두 보존하고자 하는 뜻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시서변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희 주석의 의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도 시편 해석에 있어 『시서변설』의 내용을 활용한 사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다.

「小雅」의 「楚茨」에 대한 설명에서, “「楚茨」부터 「車輦」까지 10편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다. 말의 기운이 부드럽고 표현이 자상하고 온화하여 풍자의 뜻이 없다.”²²⁾고 하면서 『시서변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 「魚藻」에 대해 “이 시편의 뜻은 「楚茨」 등과 서로 같은 부류이다.”²³⁾라고 하였고, 「采芣」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²⁴⁾라고 하는 등 『시서변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²⁵⁾ 요컨대 「楚茨」, 「魚藻」, 「采芣」에 대해 김종정은 본인의 설명이나 주장을 더하는 대신 『시서변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기를 바란 것이다.

「大雅」의 「常武」에서는 小序의 “뒤편한 德이 있어 武事を 이루었으니, 이로 인해 경계로 삼은 것이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이 편

21) 『詩序辨說』, 「召南·騶虞」: 歐陽公曰: “賈誼新書曰: ‘騶者, 文王之囿名, 虞者, 囿之司獸也.’” 陳氏曰: “禮記射義云: ‘天子以騶虞爲節, 樂官備也.’ 則其爲虞官明矣. 獵以虞爲主, 其實歎文王之仁而不斥言也.” 此與舊說不同, 今存於此.

22) 『詩序辨說』, 「北山之什·楚茨」: 自此篇至車輦十篇, 似出一手. 詞氣和平, 稱述詳雅, 無風刺之意. 序以其在變雅之中, 故皆以爲傷今思古之作, 詩固有如此者. 然不應十篇相續, 而絕無一言以見其爲衰世之意也. 竊恐正雅之篇, 有錯脫在此者耳. 序皆失之.

23) 『詩序辨說』, 「桑扈之什·魚藻」: 此詩意, 與楚茨等篇相類.

24) 『詩序辨說』, 「桑扈之什·采芣」: 同上.

25)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筓錄」 詩傳: 楚茨. 朱子曰: “自此篇至車輦十篇, 似出一手. 詞氣和平, 稱述詳雅, 無風刺之意. 序以其在變雅之中, 故皆以爲傷今思古之作. 詩固有如此者. 然不應十篇相續, 而絕無一言以見其爲衰世之意也. 竊恐正雅之篇, 有錯脫在此者耳.” 詩序辨 ○又於魚藻曰: “此詩意, 與楚茨等篇相類.” 又於采芣曰: “同上.”

을 「常武」라고 이름한 뜻이 과연 실제로 그러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치상 또한 통한다.”라는 『시서변설』의 내용을 언급하였다.²⁶⁾ 이는 소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치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 주희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魯頌」의 「泮水」에서는, 小序의 “僖公이 泮宮을 잘 수리함을 칭송한 시이다.” 그리고 『시서변설』의 “이 또한 잔치를 벌이고 洛成을 읊은 시이다. 능히 잘 수리한 것을 칭송한 시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주자어류』 권81의 “이 편에 대한 소서의 해석을 『시집전』에서 취하지 않았다. 시 가운데에 ‘既作泮宮’이라는 말이 있으니 반드시 수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黃榦(1152-1221)은 ‘이 시는 洛成을 읊은 시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²⁷⁾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泮水」에 대해서 김종정은 소서의 내용을 참고하되, 『시서변설』과 『주자어류』의 내용을 인용하며 『시집전』을 보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종정은 『시서변설』이 詩序의 연원과 朱子 논변의 大旨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서변설』의 서문을 轉載하였으며 또한 각 시편의 해설을 진행할 때에도 해당 시편의 이해와 『시집전』 보충을 위해 『시서변설』의 내용을 인용 및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김종정이 조선 학자들 가운데 가장 『시서변설』을 중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김종정은 왜 『시서변설』을 중시하였을까? 다음 내용을 통해

26)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筭錄」 詩傳: 常武. 小序曰: “有常德而立武事, 因以爲戒.” 朱子曰: “名篇之意, 未知其果然否, 然於理亦通.” 詩序辨.

27)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筭錄」 詩傳: 泮水. 小序曰: “泮水, 頌僖公能修泮宮也.” 朱子詩序辨曰: “此亦宴飲落成之詩, 不爲頌其能修也.” 又語類曰: “泮宮小序, 詩傳不取, 或言詩中既作泮宮, 則未必非修也. 某黃勉齋字云, 此落成之詩.” ○ 按, 此兩條說, 可補集傳之闕.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詩序는 毛公이 각 시편의 앞에 나누어 붙인 것으로부터 전해진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모두 이를 굳게 믿고 감히 다른 해석을 하지 않았다. 비록 程子같은 大賢이라도 끝내 바로잡지 못했다. 주자에 이르러 이 詩序를 모두 철저히 없애버리고, 오직 詩의 말을 근거로 하여 그 뜻을 해석하였다. 이로 인해 『시경』 삼백 편의 진정한 면모가 천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분명하고 밝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어찌 대단히 통쾌한 일이며 『시경』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28)

김종정은 朱熹가 詩序를 폐기하고 '以詩解詩'의 방법으로 『시경』을 해석함에 따라 『시경』의 진면모가 밝혀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주희의 '反詩序'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反詩序'의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곧 『시서변설』이다. 그러므로 김종정은 『시집전』의 미비점을 보충하면서 특히 詩序의 문제점을 논박한 『시서변설』을 더욱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正祖(1752-1800)

正祖의 『詩經講義』에서도 『시서변설』의 내용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다음은 「시경강의」에서 진행하였던 「桑中」의 淫詩 여부에 대한 정조의 질문이다.

『시집전』에서는 『禮記』 「樂記」의 '桑間濮上'이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28) 金鍾正, 『雲溪漫稿』 卷13, 「筭錄」 '詩傳': 詩序自毛公分置諸篇之首, 流傳既久, 人皆篤信, 無敢異辭. 雖以程子之大賢, 而猶未勘破. 至朱子, 一切痛掃去之, 直據其辭而斷其義, 遂令三百篇眞面目, 昭晰呈露於千載之後, 豈非一大快事. 而有功於詩經大矣.

“이것이 바로 桑中의 시이다.”라고 하였다. 만일 이와 같다면 공자께서 시를 刪定할 때에 굳이 음란하고 박자가 빠른 桴 가운데에서 취하여 삼백편에 엮어 넣음으로써 朝廟·聘享의 雅樂으로 삼은 것은 어찌서인가? 『시서변설』에서는 “二南과 雅·頌은 제사와 朝聘에 쓰는 것이고, 鄭·衛의 음악과 桑間濮上의 음악은 여향의 花柳家에서 쓰는 것이다. 공자는 鄭風과 衛風에 대해 그 성률을 음악에서 깊이 끊어버리는 것으로 법도를 삼았으며 그 가사를 『시경』에 엄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라고 하였다. ... 이것은 시를 해설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큰 논쟁거리인데, 講員들의 뜻은 어떠한가?²⁹⁾

여기서 정조는 「桑中」에 대한 『시집전』 및 『시서변설』의 해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시집전』과 『시서변설』의 내용이 적합하지 논의해 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桑中」이 淫詩라는 주장의 근거로 『시집전』뿐 아니라, ‘공자가 鄭風과 衛風에 대해 대해 그 음란한 소리를 없애고 대신 경계로 삼기 위해 가사만을 『시경』에 수록하였다는 『시서변설』의 내용도 인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조의 「시경강의」에서는 주희 시경학을 이해하기 위해 『시집전』뿐 아니라 『시서변설』의 내용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경강의」의 「關雎」에 대한 내용이다.

「關雎」의 뜻에 대하여 孔安國과 鄭玄은 詩序說을 따르면서 ‘后妃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 程子和 朱子는 經文의 뜻에 근거하여 ‘宮人 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시서변설』에서는 曾南豐(曾鞏)의 말을 인용하여 “文王이 일어나니 안으로는 后妃의 「關雎」와 같은 덕

29) 正祖, 『弘齋全書』卷87, 「經史講義」24, 「鄘風」: 集傳引樂記桑間濮上之文, 而以爲卽此桑中之詩. 苟如是則夫子之刪詩, 必取於靡曼繁促之音, 而編之三百篇之中, 以爲朝廟聘享之雅樂者, 何也. 詩序辨說曰, 二南雅頌, 祭祀朝聘之所用也. 鄭衛桑濮, 里巷狹斜之所用也. 夫子於鄭衛, 深斥其聲於樂, 以爲法, 嚴立其詞於詩, 以爲戒. ... 此乃說詩家一大訟案, 未知講員之意如何.

행이 있고 밖으로는 여러 신하의 「周南」·「召南」과 같은 미덕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주자가 결론지어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옛날 학설을 그대로 쓴 것 같다. 학자들은 장차 어느 것을 따라야 하겠는가?³⁰⁾

孔安國과 鄭玄은 詩序에 근거하여 「關雎」의 작자를 ‘后妃’라고 하였고, 주희의 『시집전』에서는 ‘宮人’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시서변설』에서는 曾南豐의 말을 인용하면서 「관저」는 문왕의 덕을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둔 시편이라고 하였다.³¹⁾ 이에 대해 정조는 『시서변설』의 경우는 舊說, 즉 「관저」의 작자를 후비로 보는 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설 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시집전』과 『시서변설』의 주장이 다른 경우를 가져와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정조는 주희 시경학의 이해를 위해 『시집전』뿐 아니라 『시서변설』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집전』과 『시서변설』의 주장이 다른 경우를 언급한 것으로 ‘騶虞’에 대해 正祖가 질문하고 韓商新이 답변한 내용이 있다.³²⁾ 추우에 대해

30) 正祖, 『弘齋全書』 卷106, 「經史講義」 43, 「總經」: 關雎之義, 孔鄭則宗序說而謂是后妃所作, … 程朱則據經旨而謂是宮人所作, … 然詩序辨說引曾南豐之言曰: “文王之興, 內則后妃有關雎之行, 外則羣臣有二南之美”, 而朱子結之曰: “此說得之”, 則似亦仍用舊說也. 學者將何適從歟.

31) 『詩序辨說』, 「周南·關雎」: 但其詩雖若專美大姒, 而實以深見文王之德, 序者徒見其詞, 而不察其意, 遂壹以后妃爲主, 不復知有文王, 是固已失之矣. … 唯南豐曾氏之言曰: “… 二南之業, 本於文王, 豈自外至哉. 世皆知文王之所以興, 能得內助, 而不知其所以然者, 蓋本於文王之躬化, 故內則后妃有關雎之行, 外則羣臣有二南之美, 與之相成, …” 竊謂此說, 庶幾得之.

32) 正祖, 『弘齋全書』 卷80, 「經史講義」 24, 「召南」: 騶虞二字, 歐陽公據月令七騶之文, 周官山澤虞之稱, 以爲官名, … 今以是說攷之經文, 則辭達理順, 庶得正義, 而騶虞之爲獸名, 不見於爾雅諸書, 其真有此獸, 有未可知, 集傳之不從歐說, 而必以獸名解之者, 果有他的據耶. / 商新對. 太公六韜及淮南子, 皆記散宜生得騶虞獻紂之事, 不可以其見漏於爾雅, 而遂謂無此獸名. 然歐說亦自有據, 故朱子別錄其言於詩序辨說, 以備一說也.

『시집전』에서는 ‘짐승 이름이다. 흰 범에 검은 무늬로 산 생물은 먹지 않는다.’³³⁾라고 하였으며, 『시서변설』에서는 歐陽公과 陳氏의 ‘추우 관 직설’을 수록해 두었다.³⁴⁾ 이 또한 정조가 주희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시집전』뿐 아니라 『시서변설』을 검토하였던 사례라고 하겠다.

이상의 「시경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正祖는 주희의 견해를 검토할 때에 『시집전』뿐 아니라 『시서변설』의 내용 또한 아울러 참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의 언급을 살펴보면, 『시서변설』은 『시집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더 상세히 보충하거나 혹은 『시집전』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정조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시경강의」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3) 洪奭周(1774-1842)

洪奭周는 다음과 같이 詩經學史에서의 朱熹의 역할, 그리고 『詩序辨說』이 지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시서변설』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孝經』은 曾子가 지었다고 하고 詩序는 子夏가 지었다고 하는데,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공경히 높이고 받들고 聖賢의 손때 묻은 책으로 여기면서 전수하여, 한 글자 한마디의 말이라도 감히 그 得失을 논하려 하지 않은 것이 이미 천 년이 넘었다. 朱子가 그로부터 천여 년 후에 등장하여 분명히 이것들을 후세 사람이 덧붙인 것이라 여겼다. 처음에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가운데서도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는 이미 의심을 한 후에 그것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詩序辨說』과 『孝經刊誤』 같은 책들이 지어짐에 따라, 眞僞

33) 『詩集傳』, 「召南·騶虞」: 騶虞, 獸名, 白虎墨文, 不食生物者也.

34) 『詩序辨說』, 「召南·騶虞」: 歐陽公曰: “賈誼新書曰: ‘騶者, 文王之囿名, 虞者, 囿之司獸也.’” 陳氏曰: “禮記射義云, ‘天子以騶虞爲節, 樂官備也.’ 則其爲虞官明矣. 獵以虞爲主, 其實歎文王之仁而不斥言也.” 此與舊說不同, 今存於此.

와古今을 판단하는 일이 마치 흑백이 나뉘듯 분명해졌다. 학문이 아직 朱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가 經傳의 眞僞를 함부로 논한다면, 본디 성인의 말씀을 모독하는 죄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끝내 한마디 말도 묻지 못한다면 돌과 옥이 섞여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經傳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³⁵⁾

漢代 詩經學에서는 공자의 제자인 子夏가 詩序를 지었다고 하면서 시서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시서는 宋代 이전까지 천여년 동안 『시경』 해석 지침의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시편의 내용과 시서의 설명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천여년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宋代에 이르러 여러 학자들이 시서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朱熹는 시서가 후인들에 의해 덧붙여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反詩序’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홍석주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시서의 진위와 득실을 분명하게 파악한 주희의 견해를 수록한 『시서변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홍석주는 『시서변설』의 편찬 취지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올바른 『시경』 이해를 위해 『시서변설』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詩序辨說』로 인해 眞僞와 古今을 판단하는 일이 마치 흑백이 나뉘듯 분명해졌다”라는 언급을 통해 詩經學史에서 『시서변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14, 「朱子大全語類仰質十一條」: 臣竊惟孝經出於曾氏, 詩序出於子夏, 後世儒者尊閣而嘖享之, 傳以爲聖賢之手澤, 而不敢議到於隻字片言之得失者, 千有餘年矣. 朱夫子出於千有餘年之後, 斷然以爲後人之附益. 始也疑之於不疑之中, 而終焉決之於既疑之後, 於是乎詩序辨孝經刊誤之書作, 而眞僞古今之辨, 昭昭然如黑白分矣. 夫學未到朱子, 而欲妄議經傳之眞贋, 固不免於侮聖言之罪. 然於其眞可疑者, 而終不能一言以質之, 則珉玉之相雜, 又豈不反爲經傳之累哉.

2) 『詩序辨說』에 대한 비판적 입장

(1) 徐澄修(1749-1824)

조선시대에 『시서변설』을 자주 인용한 학자 중 한 명으로 明阜 徐澄修를 들 수 있다. 그는 본인의 『시경』 해설서인 『詩故辨』에서 『시서변설』을 인용 및 활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서변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

참고로, 『시고변』은 구성과 내용의 측면에서 清代 초의 王鴻緒(1645-1728)가 편찬한 『欽定詩經傳說彙纂』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편은 '小序→諸家の 說→『詩集傳』→諸家の 說→按說'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小序와 『詩集傳』은 311편 전편에 수록되어 있고 제가의 설로 70여명 학자들의 해설을 인용하였다. 또한 총론을 포함하여 총 62조의 按說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였다.³⁶⁾

『시고변』에서 『시서변설』을 인용하고 활용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집전』에 이어서 『시서변설』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桑中」, 「伯兮」, 「丘中有麻」, 「狡童」, 「出車」), 그리고 諸家の 說로 제시한 王鴻緒의 설에 『시서변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終風」, 「凱風」, 「有女同車」, 「宛丘」, 「出車」)이다. 이 경우는 주로 『시서변설』의 내용을 인용만 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서형수의 『시서변설』에 대한 견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서변설』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거나 『시서변설』의 내용을 담은 王鴻緒의 설을 인용한 것은 그만큼 『시서변설』의 주장에 서형수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6) 윤선영(2011) 8-9면.

둘째, 按說에서 직접 『시서변설』을 인용한 경우이다. 이는 『시서변설』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서형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시서변설』에 대한 서형수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采葛」에 대한 서형수의 按說이다.

『詩序辨說』에서는 이 편이 「大車」와 서로 연이어 있으며, 줍을 캐는 것〔采葛〕이 새삼을 캐고〔采唐〕 순무를 캐는 것〔采葑〕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淫詩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만일 서로 연속되는 시편과 興을 일으킨 뜻을 근거로 시편의 창작 이유를 결정할 수 있다면, 주자의 이른바 음분하는 내용의 「靜女」가 어찌하여 난리를 근심하는 내용의 「北風」 다음에 있으며, 참소를 풍자하는 내용의 「采芣」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가진 「采葛」와 유독 함께 있지 않은 것인가? 한 사람의 억측으로 근거 있는 舊說을 가벼이 폐기해서는 안 될 듯하다.³⁷⁾

주희는 『시집전』에서 「采葛」를 음시라고 판정하였고,³⁸⁾ 『시서변설』에서도 「采葛」를 ‘淫奔之詩’라고 하며 명확하게 음시라고 판정하면서 아울러 음시로 판정한 근거로 이 편이 「大車」와 서로 연이어 있고, 이 시에서 언급한 ‘采葛’이라는 동작이 음시인 「桑中」의 ‘采唐’, ‘采葑’, ‘采麥’과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다.³⁹⁾ 그러나 서형수는 주희가 음시로 판정한 「靜女」가 내용상 「정녀」와 관계없는 「北風」 바로 다음에 연이어 있

37) 徐澐修, 『詩故辨』, 「王風·采葛」: 按, 詩序辨說, 以此篇與大車相屬, 采葛與采唐采葑相似, 而定爲淫奔之詩. 苟以其相聯之篇, 起興之義而可決所以作之故, 則朱子所謂淫奔之靜女, 何次於北風之閔亂, 刺議之采芣, 獨不與采葛相似乎? 恐不當以一人臆見, 輕廢舊說之有據也.

38) 『詩集傳』, 「王風·采葛」: 采葛所以爲絺綌, 蓋淫奔者託以行. 故因以指其人, 而言思念之深, 未久而似久也.

39) 『詩序辨說』, 「王風·采葛」: 此淫奔之詩, 其篇與大車相屬, 其事與采唐采葑采麥相似, 其詞與鄘子衿正同, 序說誤矣.

다는 점, 참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采芻」이 내용상 「采芻」과 비슷한 「采葛」과 연이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시서변설』에서 제시한 내용이 억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시서변설』에서 음시의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을 부정한 것이다. 이어서 舊說 즉 詩序의 견해를 쉽게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요컨대, 서형수는 주희의 시서에 대한 견해가 집약되어 있는 『시서변설』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타당성 없다고 판정하였으며, 이러한 주희 설 대신에 시서설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 것이다.

다음은 「溱洧」에 대한 서형수의 按說이다.

「孔子世家」에 “시 3천여 편 가운데 공자가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禮義에 적용할 만한 것 305편을 취하여 韶·武·雅·頌의 음률에 맞기를 구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음란한 것을 풍자한 것은 취할 만하고 음란한 것을 부추기는 것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주자는 ‘음분한 자가 스스로 지었다’는 설을 힘써 주장하였으며, 『춘추』에서 亂臣賊子의 일을 기록하여 후대에 鑑戒를 보였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 성물을 음악에서 깊이 끊어버리는 것으로 법도를 삼았으며, 그 가사를 『시경』에 엄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라고 하였다. 무릇 『춘추』에서 난신적자에 관하여 그저 사실을 기록하기만 한 것이 아니니, 善은 표창하고 惡은 폄하하여 筆削을 가하는 사이에 절로 무한한 權衡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魯史』의 옛 문장이 실로 시대를 살피고 세도를 논하기에 충분하니 또 무엇 때문에 성인의 필삭을 기다릴 것인가!⁴⁰⁾

주희는 『詩序辨說』 「桑中」에서 “공자는 鄭風과 衛風에 대해 그 성물을

40) 徐澧修, 『詩故辨』, 「鄭風·溱洧」: 按, 孔子世家云: “詩三千餘篇, 孔子去其重, 取其可施于禮義者三百五篇, 以求合于韶武雅頌之音”, 則刺淫可取, 宜淫不可取, 而乃朱子力主淫者自作之說, 引春秋所記, 亂臣賊子之事, 垂鑑戒於後者, 以爲深絕其聲於樂, 以爲法, 而嚴立其詞於詩, 以爲戒. 夫春秋之亂臣賊子, 不但紀其事, 而已善則褒之, 惡則貶之. 筆削之間, 自有無限權衡. 不然魯史舊文, 固足以考論時世, 又何待夫聖人之筆削歟!

음악에서 깊이 끊어버리는 것으로 법도를 삼았으며 그 가사를 『시경』에 엄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 만약 성인이 참으로 어지러움을 말하지 않으신다면 『춘추』에 난신적자의 일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 풍속과 사변의 실질을 후세에 감계로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부득이 난신적자의 일을 남겨둔 것이다.”⁴¹⁾라고 하면서, 『시경』에 음시가 수록된 것은 성인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음란한 성물(소리)을 끊어버리고 그 懲創할 수 있는 가사는 『시경』에 남겨둔 것은 『춘추』에서 난신적자의 일을 기록하여 후대에 鑑戒로 삼으려고 한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형수는 「孔子世家」를 인용하면서 ‘음란한 것을 풍자한 것은 취할 만하고, 음란한 것을 부추기는 것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刺淫詩’는 인정하였지만 ‘淫詩’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춘추』의 난신적자의 일은 褒貶, 즉 美刺를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주희가 『시서변설』에서 제시했던 음시설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美刺說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형수는 주희설 보다 시서설을 더 중시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주희의 『시서변설』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출한 것은 그의 이러한 詩經觀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徐有槩(1764-1845)

徐滢修의 조카이면서 達城 徐氏 집안의 대표적인 박학자이자 실학자

41) 『詩序辨說』, 「鄘風·桑中」: 夫子之於鄘衛, 蓋深絕其聲於樂, 以爲法, 而嚴立其詞於詩, 以爲戒, 如聖人固不語亂. 而春秋所記, 無非亂臣賊子之事, 蓋不如是, 無以見當時風俗事變之實, 而垂鑑戒於後世. 故不得已而存之.

로 평가받는 徐有渠 또한 詩序說 및 주희의 『詩序辨說』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笏園 徐潞修(1766-1802)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글에서 ‘詩序’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이것이 시가 어려운 까닭이니, 그 원인은 오로지 詩序를 버리고 시 본문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 朱子에 이르러서는 시서를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시집전』과 『시서변설』 등을 써서 구설과 관련된 것들은 그릇되고 허황하다고 배척했습니다. 이에 『시집전』만이 세상에 유통되었고 시서는 폐기되었으며, 경전을 공부하는 유생들과 학문에 열중하는 학자들 중에 시서가 있음을 알지 못함이 이미 수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經傳을 검토해 보고 여러 학자들의 설을 참조하여 異同을 비교해 보고 得失을 분별함으로써 시인의 본 뜻을 거슬러 추구해 보았더니, 주자의 經에 근거한 해석은 고루한 학자들의 답습과 오류를 씻어낸 것으로 진실로 경전 해석의 정범이자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이 때문에 바로 시서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주자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시서를 폐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겠습니다.⁴²⁾

시가 어려운 까닭은 詩序를 버리고 시 본문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주희가 시서를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시집전』과 『시서변설』 등을 써서 시서를 비판하고 배척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유구의 입장은 주희가 주장한 ‘以詩解詩’에 대한 부정이며, 시서를 穿鑿附會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희의 經에 근거한 해석은 경전 해석의 정범이자 진리’라고 하면

42) 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卷2, 「答笏園子論詩序書」: 此詩之所以難明, 而原其由則專坐乎廢序而觀詩耳. ... 逮乎朱子, 斷之爲後人傳會, 而著爲詩集傳詩序辨說諸書. 凡係舊說, 動斥謬妄. 於是乎集傳孤行于世, 而詩序遂廢. 經生學究之不知有詩序者且幾百年矣. 侄嘗稽之經傳, 參之諸家, 較挈乎異同, 辨別乎得失, 而有以溯求于詩人之旨, 則朱子之因經詮解, 一洗末師因襲之陋, 誠爲釋經之正法眼藏, 而如或因此而遽廢序說, 則又恐非朱子意也. 蓋侄之疑序說之不可廢者, 其說有三.

서 주희의 『시경』 해설을 긍정하였으며, 시서를 폐기하고자 하는 주장은 주희의 본뜻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서유구는 주희의 시경학과 시서설을 모두 긍정하고 절충하는 입장이었지만, ‘시서를 폐기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들겠다’고 하면서 상세한 논설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시서설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이는 주희의 시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집약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시서변설』에 대해 주희의 ‘初年未定之論’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면모에서도 볼 수 있다.⁴⁴⁾

서유구는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며 끝부분에서 “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반드시 『시집전』을 주로 하여 의리를 구하고, 시서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야 한다.”⁴⁵⁾고 하였다. 요컨대 서유구는 주희의 『시집전』과 『시서변설』을 무조건 배척한 것은 아니었으며,⁴⁶⁾ 주희의 시경학과 시서설의 장점을 각각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3) 서유구는 「經史講義」에서도 ‘시서설은 절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正祖, 『弘齋全書』卷88, 「經史講義」25, 「總論」: 有策對. 辨詩之道, 當先辨序說之眞僞. 蓋小序之作久矣, 傳授既遠, 論說多歧, 至今爲一大疑案, 而臣則竊謂序說決不可廢.)

44) 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卷2, 「答笏園子論詩序書」: 然則朱子所謂後儒傳會, 特指其每篇首句之下續申之說, 或出於後儒, 而非眞以大序小序. 全歸之杜撰也. 況柏舟之仁人, 子衿之學校, 皆辨說之所嘗深斥者, 而及夫注孟子作洞賦, 乃反仍用舊說, 則攷其初晚之別, 可知朱子之意, 而辨說一篇, 猶屬初年未定之論.

正祖, 『弘齋全書』卷88, 「經史講義」25, 「總論」: 況柏舟之仁人, 子衿之學校, 皆辨說之所深斥者, 而及夫註孟子作洞賦, 并皆仍用舊說, 則辨說一篇, 猶屬初年未定之論. 苟或因此而遽廢序說, 則恐非朱子意也.

45) 徐有渠, 『楓石全集』, 『金華知非集』卷2, 「答笏園子論詩序書」: 侄故曰善讀詩者, 必主之集傳, 以求義理, 本之序說, 以考實蹟, …

46) 서유구는 大序와 小序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시서변설』의 공을 언급하기도 했다. (徐有渠, 『楓石全集』, 『楓石鼓篋集卷』卷6, 「雜著」'詩策': 至於朱子作詩序辨說, 遂分詩之至也以上爲大序, 關雎后妃之德以下爲小序, 而后綱領條目, 粲然不紊.)

4. 결론

본고는 朱熹 『詩序辨說』의 저술 취지와 내용적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하고 아울러 조선의 학자들이 『시서변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시서변설』이 朱熹 詩經學에서 가지는 위상 및 조선 학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 『시서변설』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경학에 대한 주희의 견해는 『시서변설』뿐 아니라 『시집전』, 『시전유설』, 『주자어류』, 주희의 문집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시경학의 여러 쟁점 중에서 특히 詩序說과 淫詩說에 대한 주희의 견해 즉 詩序의 해석을 부정하고 淫詩를 강조하는 입장은 『시서변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집전』에 비해 『시서변설』이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서변설』에 주희의 정설이 담겨 있다는 점 또한 『시서변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시서변설』 「서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서변설』의 저술 취지와 구성 방식 등을 정리해 보았다. 주희는 衛宏이 지은 시서는 믿을만한 것이 못 되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시서를 경문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기록으로 모으고 시서의 得失을 논하여 그것의 오류를 변증하겠다는 취지로 『시서변설』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의 ‘反詩序說’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시서변설』 구성의 특징으로는 大序와 小序의 구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서와 소서에 대한 역대의 다양한 논의를 종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주희가 판정한 淫詩 시편에 대한 『시서변설』의 해석을 검토

하면서 『시서변설』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시서변설』은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시편의 요지를 제시하고 淫詩說을 강조하였다는 점, 詩序說과 美刺說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시경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희의 견해 특히 음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시서변설』을 인용하고 활용한 사례와 그 의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金鍾正, 正祖, 洪奭周는 『시서변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서변설』의 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시서설을 중시하였던 徐澐修와 주희 시경학과 시서설을 겸하고자 하였던 徐有槩는 대체로 『시서변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주희 시경학 및 시서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시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서변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漢〕毛公·鄭玄, 『毛詩鄭箋』.

〔唐〕孔穎達 撰, 『毛詩正義』.

〔宋〕朱熹, 『詩集傳』, 『詩序辨說』.

〔宋〕朱鑑, 『詩傳遺說』.

〔宋〕黎靖德 編, 『朱子語類』.

〔朝鮮〕金鍾正, 『雲溪漫稿』,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朝鮮〕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朝鮮〕徐有槩, 『楓石全集』,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 [朝鮮] 徐澐修, 『明臯全集』,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朝鮮] 尹鳳朝, 『圃巖集』,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朝鮮]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朝鮮]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본, 한국고전번역원.

- 강민구(1998), 「徐有槩의 『詩經』 변석에 대한 연구」, 『한국시가연구』 4, 한국시가학회.
 강민구(1998), 「楓石 徐有槩의 詩經學 연구 서설」, 『반교어문연구』 9, 반교어문학회.
 심경호(1999),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양원석(2009), 「朱熹의 『詩經』 注解書 비교 연구」, 『한문고전연구』 19, 한국한문고전학회.
 윤선영(2011), 「明臯 徐澐修의 『詩故辨』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훈(1994),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천기철(2004), 「詩序와 朱熹의 詩 의식」, 『동양한문학연구』 20, 동양한문학회.
 홍유빈(2024), 「明臯 徐澐修 '二南' 說詩의 특징과 의미 - 『詩故辨』 〈周南〉·〈召南〉의 按說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80, 대동한문학회.
 檀作文(2003), 『朱熹詩經學研究』, 北京: 學苑出版社.
 夏傳才(2007),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雷炳鋒(2011), 「朱熹 『詩序辨說』 試論」,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3卷 第2期.
 錢 穆(2011), 『朱子新學案』, 北京: 九州出版社.
 付星星·金秀旻(2021), 『韓國詩經學概要』,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The Purpose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Shixubianshuo*
(詩序辨說), and Its Reception and Utilization
by Joseon Scholars *

Yang, Won seok **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purpose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Zhu Xi(朱熹)'s *Shixubianshuo*(詩序辨說), while also examining how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perceived and utilized the text. Through this, the paper seeks to determine the status of *Shixubianshuo* within Zhu Xi's *Shijing*(詩經) scholarship, as well as its influence on the intellectual landscape of Joseon Confucianism.

In the main discussion, an analysis of the preface to *Shixubianshuo* is undertaken to clarify the intent and compositional structure of the work.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Shixubianshuo*'s interpretation of the *Yinshi*(淫詩), as classified by Zhu Xi, to identify its distinctive content features. Subsequently, the study investigates examples of how Joseon scholars cited and applied *Shixubianshuo*,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such engagem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Zhu Xi compiled *Shixubianshuo* with the intention of separating the *Shixu*(詩序) from the main text of the *Shijing*, treating them as distinct records. In doing so, he aimed to critically examine their merits and demerits, thereby revealing the fallacies embedded within them. This work clearly articulates Zhu Xi's "anti-*Shixu*"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25.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inographic Literatures at Korea University. / E-mail: yang1st@korea.ac.kr

position. A notable structural feature of Shixubianshuo is its explicit distinction between the Daxu(大序) and Xiaoxu(小序), which served to conclude longstanding debates regarding their classification.

In terms of content, Shixubianshuo is marked by three main characteristics: first, it presents the core ideas of the poems in a concise and lucid style, with a strong emphasis on the Yinshi theory; second, it offers a pointed critique of the Shixu theory and the Meici theory (the doctrine of praise and satire), substantiating these criticisms with detailed reasoning; and third, it articulates Zhu Xi's perspective on key issues in Shijing scholarship, especially by providing concrete grounds for his argument regarding licentious poems.

Among Joseon scholars, Kim Jong-jing(金鍾正), King Jeongjo(正祖), and Hong Seok-ju(洪奭周) expressed positive evaluations of Shixubianshuo and emphasized its importance. In contrast, scholars such as Seo Yeong-su(徐滢修), who placed high value on the Shixu, and Seo Yu-gu(徐有槩), who sought to reconcile Zhu Xi's Shijing scholarship with the Shixu tradition, were generally critical of the work. Nevertheless, all these scholars made extensive use of Shixubianshuo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Zhu Xi's Shijing theory and the individual poetic texts.

Key Words

Zhu Xi(朱熹), Shijing Scholarship(詩經學), Shixubianshuo(詩序辨說), Joseon Dynasty, Kim Jong-jeong(金鍾正), King Jeongjo(正祖), Hong Seok-ju(洪奭周), Seo Heong-su(徐滢修), Seo Yu-gu(徐有槩)

논문접수일: 2025.12.12. 심사완료일: 2025.12.15. 게재확정일: 2025.12.30.